

Special Theme

02

전통시장의 화재위험특성과 안전관리

장영환

KFPA 고객센터팀장



1. 머리말

우리가 한 번씩 듣는 말들 중에 “情”이 묻어나고,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려면 재래시장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 물건 가격을 흥정하여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친근한 장소가 재래시장이라는 곳일 것이다. 이러한 재래시장은 2010년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우리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오늘날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정감 가는 전통시장이 간혹 화재로 인해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서민들의 애환과 과거 향수에 대한 추억마저도 조그마한 불씨로 인해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은 50년대 이래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는 현재 1,511개의 집단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추정된다¹⁾. 전통시장의 특징은 비좁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의 여유가 적으며, 상점 내 판매하는 제품들 중 합성섬유, 고무류, 종이류 등 다양한 가연물이 시장 내 산재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소화활동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에서 시장의 건축물과 내부 시설에 대한 현대화 시설과 같은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어 과거보다는 다소 화재위험부분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 5년(2008~2012년)동안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²⁾는 연평균 발생건수로 67건, 인명피해 4.8명, 재산피해로는 659,296천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차례 언급되어 다루어진 내용이지만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2012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시장경영진흥원

2)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2.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실태

가. 전통시장의 구조적 한계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많아 점포별 방화구획이 부재하거나 연소확대 차단시설 설치의 어려움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방활동을 위한 통로에 좌판이나 상품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물건의 무질서한 적재상태, 협소한 진입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화활동을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내부 수용물은 대부분 가연성이 매우 높은 물품을 가지고 있어 연소 확대의 요인이 되며 진압활동에도 장애를 주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 무분별한 위험물질의 취급

전통시장의 특징으로 전기시설과 가연성 가스시설 사용 문제점이 있는데, 전기시설로는 일반적으로 임의 변경설치 및 무분별한 전기장치 사용과 노후전선 방치 관리가 있으며, 가연성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용기·밸브·배관 등 시설 관리·취급 부실 등이 있다. 그리고 섬유 등 가연성 물질 판매 매장과 화기 및 LPG·LNG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혼재되어 대형화재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 소방시설의 비적응성과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정부에서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조합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외적인 시각효과만을 고려하여 위생·환경시설 등에 선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정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여 소방시설 보강 등 개·보수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 다른 중요 관리측면에서의 부실은 시장의 영세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관리 및 경비인원을 감축하여 소방안전관리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경비체계의 부실은 화재발생 시 초동 진압 등을 실패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곤 한다.

3. 전통시장의 위험관리

위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 이를 진행해야 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하드웨어적 측면

우선 신속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변여건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방통로 등을 상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좌판의 경우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개조하거나 시장통로 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장 내 소화기,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주변 주차단속과 장애물 정비를 정례화하여 소방통로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 소프트웨어적 측면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정례적인 합동점검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주기적으로 고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상인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지역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시장자체 자율소방대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보면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점검과 같은 분야의 투자가 용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전점검은 다양한 분야 및 전문적인 부분으로의 접근을 통해 과학적인 위험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4. 맺음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는 전통시장의 화재취약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험하지 못한 화재위험에 대한 무인지로 인해 안전시설 투자나 관심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물어봐야한다. 이런 인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요즘 정부나 제도권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가운데에 화재예방이라는 위험관리 측면의 논의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